

악이란 무엇인가?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오늘의 문예비평 , 2002.3, 139-152(14 pages)
발행처 (Publisher)	오늘의 문예비평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62740
APA Style	양명수 (2002). 악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 139-15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4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악이란 무엇인가?

양명수

(기독교학, 이화여대 교수)

1 악의 모호성

악이라고 한다면 무슨 도덕적인 가치 평가가 들어간 말 같다. 도덕적인 가치 평가라고 하면, 남에 대해 할 도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행위를 통틀어 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이란 행위의 문제이기에 앞서 행위의 동기와 관련된 마음의 문제라면, 악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겠다. 마음에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남을 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도 악인가? 그것은 오히려 애국적인 행위라고 하여 찬양받지 않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악은 매우 모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해친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불편하니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자기를 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존재가 또

한 인간이다. 그러나 악한 행위나 악한 마음은 자유를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되니, 악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행위 또는 그런 마음이 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교훈을 줄 때 주로 그런 논리를 편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 자기에게 해롭다는 것이다. 악에 대해 그런 합의가 없다면 공동체를 형성할 받침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악의 모호성에는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지금 악하다고 욕을 먹는 것도 선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힘있는 사람의 악한 행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 다시는 누구도 그런 짓을 못하도록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면, 악이 선에 이바지한 셈이다. 그렇다면, 선에 이바지했는데 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만일 인류 역사에 선한 진보가 있다면, 악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인 듯도 하다. 그렇다면 악을 심판하기가 곤란해진다. 그 때 악은 악이기보다는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부정성에 불과하다.

구조악이라는 것도 있다. 구조가 갖는 악한 성질을 가리키는데, 구조가 악하면 그 구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구조의 악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과 악을 가르고 심판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구조가 갖는 악한 성질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악 속에 산다. 악 속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선과 악을 가르다. 그런 것을 알고 보면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는 종교 차원에서 먼저 거론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인간은 모두 고만고만한데, 자기들끼리 치고 받으면서 스스로 의인을 만들기도 하고, 죄인을 만들기도 한다. 인간의 문명 자체가 잘

못된 욕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것처럼 구조악의 문제는 개인의 한계를 지적할 때 거론된다. 개인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문명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구조악의 문제는 사회 과학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개인이 선하게 되어 사회가 바뀔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사회는 개인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한 사회를 통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려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희망은 모호하게 남아 있다. 구조가 개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개인이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조악을 없애 선한 인간들의 사회를 보고자 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마르크스일 것이다. 마르크스는 구조를 바꾸면 인간 개조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는 사적인 소유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런 사유 재산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사상 교육을 통해 인간 개조를 시도했다. 구조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구조는, 결국 바뀌지 않은 사람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구조를 바꾸어야 사람이 바뀐다. 구조가 악하면 사람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어야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구조악의 문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의 문제와 어울려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악의 모호함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풀어가 보자. <나뿔>이라는 우리말을 가지고 악의 문제에 접근해 보자.

2 나쁨 : 고통과 악

우리말에서 나쁘다고 할 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재상이나 고통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람은 나쁜 것을 싫어한다. 사람은 본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선이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 않는가.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점에 집중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리해보자. 우리가 선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특히 악의 문제를 다루는 까닭이 있다. 악의 문제는 꼭 선의 문제와 같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악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 호소하는 측면이 많고 감동을 주는 측면이 많다. 그것은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악의 모호함 또는 악의 신비는 고통의 신비와 거의 같은 문제다.

나쁜 것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전에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다. 재상이나 병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이 선에 이바지할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런 고통을 가리켜 좋다고 하지는 않는다. 일단 나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뿐이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나쁜 일은 없기를 바란다.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이 있기를 바란다. 고통은 고통이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인은 아닐 것이다. 고통을 통해 인생이 깊어진다고 해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절망과 이쁨의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고통은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고통은 어디까지나 악이다.

악의 문제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나 심리에 가해지는 고통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인생에 닥친 나쁜 일이나 슬픔을 이해하는 과

정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사변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거기서 악의 문제는 죄와 벌의 인과 관계로 발전한다. 나쁜 일을 당할 때 겪는 물리적인 고통을 인간이 행한 나쁜 짓의 결과로 이해한다. 나쁨은 나쁨에 대한 벌이다. 것처럼 고통이라는 악이 인간의 행위 악에 대한 벌로 이해되면서 사람은 악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는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원인을 알아야 안심할 수 있다. 원인을 알면 재앙을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죄와 벌의 인과 관계에서 악은 인간의 행위나 마음 씀씀이 차원에서 이해된다. 물리적인 고통에서 시작된 악은 인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악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악은 것처럼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한 벌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죄와 벌의 관계는 먼저 종교적인 차원이다. 악의 문제는 종교를 낳는다. 닥친 모든 고통을 자기의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차원은 종교적인 차원이다. 우연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는 점에서 종교적인 사고 방식이다. 자식이 교통 사고를 당했거나, 자신이 몹쓸 병에 걸린 것을 자신의 죄와 연결시키는 심리가 있다. 과학적인 사고로는 나의 죄와 내 자식의 교통 사고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들이 부주의했거나 운전사의 실수가 교통 사고의 원인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고는 내가 인생에서 저지른 죄와 관련이 있다. 사람은 흔히 그런 종교적인 차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런 재앙을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 속에 들어 있는 죄의 모습을 본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단순히 행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나 도덕에서 말하는 악이 아니다. 깊이 부패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본다. 이른바 근본악이다.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나가는데, 마음이 근본적으로 썩어 있으면 삶 전체가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뿌리깊은 부패를 보는 인간은 종교 차원에 들어간 셈인데. 거기서 그는 입을 다문다. 선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된다.

물론 재앙을 자신의 죄와 연결할 때, 두 가지 방식의 종교성이 있다. 이른바 비과학적인 원시 종교에서는 미신적인 인과 관계에 붙들려 있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 고통이라는 벌을 가져오는 죄란 무슨 금기를 어겨 부정탄 행위를 한 것이다. 원시 신앙에 있었던 수많은 금기는 공동체나 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어떤 금기를 어겨 부정타서 어떤 재앙이 임했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재앙의 원인이 설명되어야 했다. 그런데 것처럼 부정됐다고 보는 구도에서는 무슨 윤리적인 자기 반성이 없다. 그런데 좀더 높은 종교성, 이른바 고등 종교에서도 물리적 재앙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죄와 연결시키지만, 거기서 죄는 사랑하지 못한 죄다. 사람은 무한한 사랑의 요청 앞에 서 있다. 또는 무한 책임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무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윤리를 넘어선 종교 차원이다. 그러한 종교 차원에는 자기와 가족과 조국을 넘어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의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윤리를 완성한다. 우연을 우연으로 돌리지 못한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돌릴 수 없다. 사람은 깊은 고통을 통해 자기와 세상의 죄를 보면서 동시에 욕심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무한대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것이 고통의 신비요, 악의 신비다.

악의 신비에는 의인의 고난이 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고통이 닥치는가’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이 고난 앞에서 겸허해지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자신의 죄의 깊이를 더듬어 보기도 하지만, 우선 고난에 저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해도 아무 탈없이 사업도 번창하며 잘 살더라는 얘기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러 모로 남보다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흔히 고난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의인의 고난이다. 의인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의인이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부딪칠 일도 많으니 고난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옳음에 대해서는 좋은 것들로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옳음과 좋음이 양립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옳게 살려면 안락하고 좋은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옳음이 나쁜 일을 몰고 온다. 언제부턴가 인간사에서는 옳음에는 수난이 따른다는 것이 법칙으로 되어있다. 세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하튼 의인도 그 점을 알지만 옳게 살아야 하니까 옳게 산다. 그렇다면 고난은 의인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의롭게 산다해도, 그 뒤에 닥칠 모든 고난을 미리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기로 한 의인에게도 역시 버거운 것이다. 아무리 각오하고 있어도 고난은 힘겹고, 예상 밖의 것이다. 아무리 올곧은 뜻이 있어도 고난은 역시 뜻밖의 것이다. 게다가 옳음에 대해서 좋은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 옳게 살면 나쁜 일이 많이 닥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세상이 의인을 알아주고, 고단하게 산 삶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희망은 때로는 확신을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인이 고난을 각오한다 해도, 막상 닥친 고난은 희망의 좌절이다. 그러므로 의인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고난을 즐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남모를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죄와 벌의 인과관계는 자칫 고난 당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 죄가 많아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이다. 그러므로 좁은 구도의 인과 관계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과학은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죄와 벌의 인과 관계는 인간의 성숙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 본다. 앞에서 말한 대로다. 그러나 그것도 자학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본다고 할 때, 그 때에도 분명히 나보다 더 불의한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때에는 나의 죄 뿐 아니라 세상의 죄도 보인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은지 눈에 보인다. 악에 영켜서 돌아가는 듯 인생들이 보인다. 세상의 죄의 깊이는 의인의 고난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느낌이요, 직관이요, 신념이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이 악한데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죄 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인들의 고난의 의미다. 의인의 고난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의인이 그런 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의인은 세상을 살린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이 세상을 살린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의인은 그의 언행이 가르침이 되어 세상을 살린다. 그의 언행은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인은 높은 의지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다. 그의 의지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세상을 살린다는 시각이 있으니, 그것은 종교의 차원이다.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과 세상의 악의 깊이를 체험한 상태에서 생겨나는 시각이다. 그리고 것처럼 세상의 죄에 대한 인식은 사회 구조를 철저히 개혁해야 할 필요성에 눈뜨는 것이기도 하다.

3 비극과 악의 실체성

비극이 인간에게 큰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악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극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짙어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한다. 악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악이 운명이라면 악에 대해 인간의 책임이 없다. 도덕적 차원에서 악을 해결하려면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차원이 성립하려면 악은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악을 극복할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극에서는 그런 희망이 없다. 무슨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명의 신이 사람을 던친다.

만일 악을 존재론적인 실체로 보면 사람은 아무리 해박야 악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실제로 인류는 그런 식의 사고 방식에 익숙해 있다. 악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사탄이나 마귀를 상상하거나,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이상한 힘을 염두에 둔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비극에서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운명이고,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운명이다. 때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사람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어떤 재앙이나 고통도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보면, 인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도덕적인 차원을 포함하게 된다. 도덕을 포함하는 종교다. 특히 개인을 정죄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의 무거운 죄에 대한 통찰로 갈 때, 그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인 회개와 개혁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 이하가 아닌 도덕 이상의 종교가 된다. 한편 현대 과학의 영향을 받은 합리적 사고 방식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사고 방식과 달리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이면서도 고난이라는 악을 인간의 악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비극적 사고 방식에서 그렇다.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이나 인류의 선함이나 악함과 관계없이 인생

은 처음부터 고난에 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생에 고통을 안겨 주는 어떤 나쁜 세력이 있다고 본다. 악을 실체로 본다는 것은 그런 얘기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사람이 선하게 되려고 해도 선택될 수 없는 데 있다. 이것은 사람의 근본악에 대한 통찰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는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는 인간의 자기 고백이 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거기서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한계를 느끼는데, 그 유한성의 원인을 사람 안에서 찾지 않고 사람 밖에서 찾으려 하면 비극이 된다. 인간을 유혹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이상한 힘이 있다면, 선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람은 악에 대해 생각하면서 악만을 실체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좋은 꼴을 볼 여지가 있는데 결국은 나쁜 일을 당하고 만다 든가, 선의 여지가 있는데 악이 이기고 말 때 비극이 된다. 그래서 대개는 악의 실체성을 말할 때 선의 실체성도 같이 말한다. 악의 실체성만 말하고 선의 실체성을 부정하면 인간과 세상이 처음부터 악마의 소굴이 되며, 좋은 꼴을 볼 희망이 전혀 없어진다. 사람은 그런 식의 사변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악을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요, 이미 언어의 의미 안에는 삶의 무의미를 극복할 희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선도 실체이고 악도 실체인 것이 비극이다. 다시 말해 비극적인 시각에서 보면 선과 악이 대등하게 세상을 운행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거기에는 좋음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나쁨을 배제하지 못하는 운명이 있다. 악이 실체라면 악은 끝까지 간다.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내다보지 못한다. 그것이 비극적 세계관이다. 악은 언젠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악의 실체성을 부인하고 선의 실체성만 긍정하는 세계관도 있다. 선은 존재하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은 어둠과 같아서 경험되지만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라는 얘기다. 빛이 없을 때 어둠

이 있을 뿐,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비추면 되듯이 악을 없애려면 선을 더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악은 쳐서 없애야 할 무슨 실체가 아니라, 선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태도는 궁극적인 낙관주의를 이룬다. 세상과 삶을 근본에서 긍정하려는 태도다.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현실에서 악은 만만치 않다. 아무것도 아닌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신적인 힘은 선의 힘이므로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것처럼 악의 실체성을 부정하며 선의 실체성을 강조하는 생각은 악의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사람 안에서 찾지 않고 사람 밖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종교적이다. 선의 실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희망의 근거를 사람 밖에서 찾는다는 얘기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죄의 깊이를 느끼면서도 희망을 지니는 방법은, 인간의 죄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선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선이나 악이 실체가 아니다. 원래 동서양에서 인문주의란, 종교에서 벗어나 사람의 주체성을 세우는 데 있었다. 그것은 사람 밖에서 근원적인 힘을 찾는 종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선악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선악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었다. 선과 악은 따로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봐야,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또한 책임을 지게 되어 온전한 주체가 된다.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사람에게에는 늘 두 마음이 있고 따라서 선을 이룰 수도 있고 악을 이룰 수도 있다. 선이란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하면 선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이루는 것이

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 사람 밖의 다른 실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기에서 인문주의자들은 사람의 선의 능력을 믿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지만 사람은 악하기보다는 약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선의 소질을 타고났다고 본다.

그처럼 인간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낙관주의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양심이 선악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어떤 한 시대나 한 사회의 정신 수준을 반영할 뿐이다. 과거에는 사람을 평생 노예로 부려먹으면서도 양심에 꺼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의 수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전혀 양심에 꺼리는 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심이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양심이 사람을 규정하지만,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의 사람들이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한다. 양심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자체가 이미 어떤 악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행한다고 선을 행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선악의 구별을 비웃으면서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을 부인할 수도 있다. 때로는 기존에 선한 양심이라고 했던 것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 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폭로할 수도 있다. 그런 태도는 도덕 질서에 강하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때로는 선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보거나, 21세기에 벌어지는 민족간의 계속되는 복수 극을 보면서 인간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힘이 정의라고 판명될 때 느끼는 무력감은 결국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사고 방식은 <선악을 넘어서>라는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선악을 넘어서’ 내다보는 시각이란, 선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종교 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기존의 악의 관념에 강하게 도전하며 도덕주의에 반대하는 태도로 가기도 한다. 그런 태도들은 인간의 양심에서 선과 악이 발생한다고 보는 인문주의와 세계관이나 인간관이 다르다.

4 맺는 말

고통은 나쁜 것이요 그래서 악이지만, 사람은 고통이라는 악을 통해 더욱 깊은 내면을 형성하기도 한다. 고난의 신비요, 악의 모호성이다. 그런가 하면 필요악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악을 끼고 사는 면이 있다. 분명히 악인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필요악의 혜택을 입으면서 사는 한,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란 선악을 가려 제대로 심판하는 일이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공동체의 삶이 흔들린다고 볼 때, 악을 제대로 심판하는 문제는 한 사회의 기본실력이다. 악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악을 가려야 하는 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다.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 처한 애매 모호한 상황이다.

우리 시대에는 법학적 정의가 발전하고, 과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의 죄의 깊이에 대한 인식이 얕아졌다. 그것은 미신적인 종교성에서 해방되어 사람이 당당하게 되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 선과 악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사람이 가치의 생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인권 사상을 발전시켜 평등한 인간 관계를 정립하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제도의 발전을 통한 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닌 공격성 때문에 여전히 폭력이 큰 힘을 떨치고 있다.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힘이 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폭력은 악순환 된다. 악은 순환된다. 순환적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악을 행했는지 모른다. 다만 남을 무시하고 해를 가하는 폭력이 응징의 이름으로 계속될 뿐이다. 폭력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폭력은 악이 아니라 정의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복수극은 인간 사회에서 계속된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은 인류 역사에서 변치 않고 계속되는 악의 모습이다. 폭력의 악순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틀이 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을 말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면 희망이 없다. 희망이란 결국 사람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악하기보다는 약하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다. 선하지만 약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기에는 사람이 쌓아 놓은 악의 힘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단순히 약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집요한 이기주의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 않는 것이다.

선악을 부정하고, 선악이 없는 세계에 처한다면 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고 방식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악에 저항하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희망은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필요하다. 물론 종교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에서 선악을 넘어 있는 경지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을 막고, 도덕 너머의 자유로운 경지를 열어 놓는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회피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을 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문예비평**